

# 장병완·강운태 3선 도전 ... 입지자 대거 출마 ‘다자구도’

## ■누가 뭐나

동남갑 선거구는 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가장 치열한 선거구로 꼽힌다.

국민의당을 비롯해 더민주, 원외정당 민주당, 무소속 후보까지 총 9명의 입지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표발을 누비고 있다.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숫자가 많아 본선에 앞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공천 신청을 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운동에 주력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비수도권과 광주를 지켜내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내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최근 중앙당이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교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직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동남갑 선거에서 이 교수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교수는 당 지도부에 “밀실 전략공천 움직임을 중단하라”며 “단순신청한 동남갑 선거구의 공천 절차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고령친화체험관 규제 프리존 설정 ▲심해헬스케어 산업단지 조성 ▲남구 혁신거리 조성 ▲사립학교 공동체육 시험제 마련 법 제정 ▲지역언론육성법 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겸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예산통’으로 지역예산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출마선언을 통해 “경제부처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경륜과 열정을 바탕으로 ‘호남지역 예산지킴이’로서 지역의 경제 지도를 바꿔 ‘광주 경제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한 장 의원은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남구의 숙원사업인 대구

모 그린벨트 해제와 국토부 지정 최대 도시첨단산단, 첨단영화게임산업단지를 유치했다. 또, LS산전 600억원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CGI센터, CT연구원, 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 등 다수의 정부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주요 공약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첨단산단 확대 ▲100개 에너지·문화산업 기업유치 및 3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치매예방 노화연구센터 설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도심 환경 현대화 ▲백운고가 철거 및 백운광장 활성화 ▲영하관 등 복합문화멀티플렉스 유치 등이다.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에 나선 김명진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특보를 역임하는 등 20여년간 청와대와 국회, 정당에서 정치와 정책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게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그는 앞선 19대 총선에서도 출사표를 던지고 골목 등을 누비며 민심을 훑었지만, 경선에서 현역인 장병완 의원에서 석패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승복’을 통해 ‘지고도 이긴 경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는 “남구의 일꾼으로 ‘명품 남구’를 만들고, 정치변화 선도, 민주정부 집권 견인,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와 함께 믿음직한 광주의 대리인, 남구의 국회파견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15일 예비후보 등록 후 ‘하루 1000명 악수하기’ 선거운동을 통해 수많은 지역민을 만나는 ‘경정투어’를

## 더민주 이민원 광주대 교수 공천 신청 표발 다져

## 국민의당 장병완·김명진·김영집·서정성·정진욱 출마

## 민주당 권용일, 무소속 강운태·강도석 출사표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촌에너지밸리 및 송암문화콘텐츠밸리 조기 조성 ▲에너지·문화 관련기업 유치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국제 수준 도서관 건립으로 랜드마크 형성 및 국제행사 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광주지역에서 대표적인 ‘전정배계’로 분류되는 김영집 예비후보는 전정배 공동대표와 함께 국회의원회 창당에 주도적으로 나서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호남개혁 정치 복원을 통한 정권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참여자치 21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예비후보는 “총선 후 야권을 재편하고 새롭게 통합하여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는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최근 공천과정에서 패권정치를 지적하고, “안철수 공동대표의 야권연대 불가 입장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없다”며 탈당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공약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 ▲지역차별 해소하는 지역평등법 발의와 지역격차 시정 ▲국회특권 폐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에너지·생명·첨단산업클러스터 융합한 미래형 혁신도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안철수 공동대표의 보좌관을 지냈던 서정성 예비후보는 대표적인 ‘안철수의 남자’로 꼽힌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당을 바꾸고, 야당을 바꾸기 위해 인물을 바꿔야 한다’는 인물교체론을 강조하며 지역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안과사의료 광주 남구의사회회장을 맡고 있고, 제6대 광주시의원도 지냈다. 또한, YMCA와 아름다운가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다양한 시민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해 왔고, 다문화가정 지원 단계를 통해 국내의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는 평가다. 특히 의학 5단체 등과 함께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를 설립해 1980년 광주의 나눔과 연대, 희생과 헌신, 대동정신의 광주정신 세계화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대표공약으로는 ▲에너지밸리와 문화산업밸리 구축 통한 남구 발전 ▲광역 치

매센터 설립 ▲청년 고용절벽 해소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반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자치제 추진 확대 ▲공정성장특별법, 공정입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서점 모닝365 대표이사, 교보문고 인터넷사업본부장, 한국경제TV 앵커 등을 역임한 정진욱 후보는 ‘경제전문가’로써 공정성장과 사회적 격차해소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그는 안철수와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 대변인 등을 맡아 활동해온 그는 하루 4시간 수면을 하면서 목욕탕 방문, 배식봉사 활동, 뚜벅이 선거운동을 비롯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하루 ‘300배 큰절’ 등 톡톡튀는 선거운동을 선보이며 지역민심에 다가가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제 역할을 못하는 기성정치인들 대신해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언론과 기업에서 쌓은 경제적 식견과 전문성을 공정성장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바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요공약은 ▲백운고가 조기 철거 후 백운광장 조성 ▲월산동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푸른길 보존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 ▲지역인재육성전문기관·제2광주학생회관·생활밀착형 도서관 건립 ▲대촌동 그린벨트 해제 확대 통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기업 유치 등이다.

◇**민주당**=원외정당인 민주당 후보로 남구의회의 의장을 역임한 권용일 예비후보는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정치 실현과 60년 민주당 부활을 통한 호남 정치

복원을 기치로 바둑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지방정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 골목정치가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부로 경험했다”며 “지방 의원을 줄세우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직업정치를 철저히 배제하고 주민밀착형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공약은 ▲국회 본회의 좌석 배치 개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부산 KTX개통 ▲실질적 취업 위한 취업 위주학과 설립 추진 ▲관광테마거리 활성화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이다.

◇**무소속**=무소속으로 2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또 다시 무소속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하지만, 더민주에서는 최근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탄한 지지기반을 토대로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강 전 시장은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하겠다며 야권대통합의 주역이 되겠다는 각오다.

강 전 시장은 “정치적 고향이자 지금까지 살아온 동남갑의 발전과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주요공약으로는 ▲문화와 복지가 함께하는 주거환경모델 창출 ▲창업과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가 많은 도시환경 조성 ▲문화산업과 에너지밸리의 조성 ▲기간교통망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각종 선거에 17번 출마하는 이색경력을 가진 무소속 강도석 전 광주시의원도 이번 출사표를 던지고 18번째 도전에 나선다. 강 후보는 “한 개인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해결 통한 행복한 사회 건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 제정 ▲초연역세권 개발과 송암산업단지의 도시첨단사업단지로 탈바꿈 등을 제시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관전 포인트

동남갑은 ‘현역·신진 정치인’의 대결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들은 각 당의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더민주, 무소속 3선 의원에게 도전하는 강운태 전 시장 등 본선 경쟁자들과 치열한 2자전을 펼쳐야 한다.

광주지역 다른 선거구와는 달리 더민주-국민의당-민주당-무소속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본선을 치르는 ‘다자구도’다.

## 국민의당 경선 치열·더민주 전략공천 여부 관심

우선 관전 포인트로는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경선이다. 현역 대 정치 신인들의 경쟁이다. 또한, 안철수계와 전정배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후보가 경선을 뚫고 최종 후보가 될지 주목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단순 공천을 신청한 이민원 예비후보를 공천할지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더민주가 영입한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10여년간 남구 정계에서 ‘타죽대감’ 역할을 했던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무소속 3선 도전 성공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선거구 특징

기존의 광주 남구 선거구가 동구 선거구와 통합·재편돼 ‘동구남구 갑’(이하 동남갑)선거구가 됐다. 인구 하한선(14만명)에 미달하는 동구에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등 6개 동을 넘겨줘 동남갑 선거구는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등으로 구

## 기존의 남구 ... 동구와 통합해 재편

성됐다.

남구 선거구는 15대 총선에 생겨났고, 초대 국회의원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임복진 의원이었다. 이어 16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당선됐다. 17대 총선에서도 강운태 의원이 재선을 노렸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바람이 불면서 열린우

리당의 지병문 의원에게 701표 차이로 낙선했다. 하지만, 18대 총선에서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다시 현역인 지 의원을 꺾고 재탈환을 했다. 이어 강 의원이 2010년 제5대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됐고, 그해 보궐선거에서 장병완 의원이 당선됐다. / 최권일기자 cki@

#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 모 집

자격 관리·운영규정 제7장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인정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교부

- 등 급
  - 주거환경개선사 (단일급)
  - 통맥풍수지리사 (1급, 2급, 3급)
- 응시자격
  - 본학회 4학기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 응시가능 (년2학기 : 1학기당 15주 30시간)

### ■ 풍수지리학 강의

- 개 강 : 상반기 : 3월 첫주 월요일, 하반기 : 9월 첫주 월요일
- 시 간 : 매주 월요일 17:00 부터 (2시간)
- 과 목(내용) : 자격증별로 별도 커리큘럼 참조

###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0-27번지 3층 (북구청 앞, 튼튼정형외과 병원 옆)

### ■ 문 의 : ☎ 062-511-2488, 010-3615-2488

### ■ 이사장 윤갑원 (尹甲源) 프로필

- \* 光州出生(1937年 丁丑生)
-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修了
- \* 前 羅州公共圖書館長 (書記官) 역임
- \* 前 韓國公認仲介士協會 風水地理學班 專任講師
- \* 前 社團法人 韓國人間開發研究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경희대, 東서울대, 충북대학교, 부동산학과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德成女大, 서울教育大, 대구교대, 대구가톨릭대, 충북대, 全南大, 木浦大, 順天大, 麗水大學校 平生教育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風水地理學專擔講師
- \* 現 서울, 대구, 청주, 원주, 부산, 광주會圓 매주 定期的인 現場教育 實施
- ◆ 著 書
  - 1. 道統通脈地理(宮中秘傳風水) 總整理版(改正增補 1~6 版)
  - 2. 半坪의 眞理(통맥풍수지리학 입문서)(改正增補 1~5 版)
- ◆ "선조합동묘(先祖合同墓)" 장법(葬法), 천개(天蓋)용 "봉판(棚板)"
- ◆ 홈페이지 : http://tmfs.kr 또는 "통맥풍수" 를 치세요. e-mail : insans @ daum, net



이사장 윤갑원



학회장 김국

## 제5대 이사

이 사 장 윤 갑 원  
상임이사 김 국 국  
이 사 김 종 수  
이 사 임 태 종  
이 사 황 정 연  
이 사 이 종 근  
이 사 정 병 선  
이 사 양 동 주  
이 사 정 태 일  
이 사 이 미 경  
감 사 박 석 규  
감 사 김 영 희  
사무국장 윤 인 성  
총 무 조 복